



朴 탄핵선고 운명의 날 ... 주사위는 던져졌다

오늘 오전 11시 ... 찬성 6명 땀 인용·반대 3명 땀 기각

정치권·법조계·종교계 원로들 “결과에 모두 승복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된다.

〈관련기사 2·3·4·6면〉

특히 그동안 광장에서 ‘촛불’과 ‘태극기’로 분열된 민심 수습 여부와 국정마비 등의 혼란에 빠졌던 대한민국의 운명도 결정된다. 그러나 현재가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인용과 기각을 각각 바라고 있는 한쪽은 절망과 분노에 빠질 것이고, 촛불과 태극기로 대립했던 광장은 선고 후에 더욱 격렬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선고는 한번 내려지면 어떤 힘으로도 바꿀 수 없다. 헌법질서 안에서 법률적 절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핵 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국회, 국민들 모두가 자신의 기대와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현재 결정에 불복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결정을 불복한다면 명백한 법치를 부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선거에 있어서 ‘승복 문화’에 익숙했던 정치권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수단으로 또 한번 대한민국을 엄청난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 종교계 원로들은 겸허한 결과 수용과 국민화합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선 주사위들과 각 정당은 모두 현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탄핵 결정 이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 대선 주자와 정당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했고, 이를 다른 정당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천주교 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9일 회회중 대주교 명의로 배포한 호소문에서 “순한 화해를 지르며 쌓아온 민주주의의 가치를 농락하는 악의 기운에 맞서 깨끗이 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헌법재판소의 노고와 용기에 지지를 표명한다”며 “한국 천주교회는 헌법재판소가 법치주의의 건재를 입증하는 공정한 판결로 법치주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도약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며 “그러나 엄정하게 이루어진 판결에 불복하는 극렬한 대립과 갈등은 파국을 향한 광란의 질주일 뿐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드러날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는 국민의 냉철하고 성숙한 민주주의의 의식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며 “헌법에 입각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을 수용하는 일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성숙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도 “대한민국은 ‘기각 혹은 각하’와 ‘인용’이라는 단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엄청난 갈등과 대립으로 극명하게 나뉘었다”며 “10일 8일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심판은 종결된다. 우리는 결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승복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장을 만난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은 “촛불이든 태극기든 애국을 기본으로 한 민심인데 (탄핵이) 기각되면 분열의 감정으로 갈 테니 그것이 우려된다”면서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평화로운 합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심판 이후 광장에 분출된 민심이 대립과 갈등의 아픈 상처를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르네상스를 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권원기·김용희 기자 cki@kwangju.co.kr



경찰 “탄핵 결과 불복 위력행사 땀 엄정대응”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불복한 시민들의 위력 행사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현행법 위반시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9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청와대, 헌법재판소, 국회 등 주요 시설에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빈틈없는 방호태세를 구축하고, 헌법재판관 등 주요 인사의 신변 위해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현재 판결을 방해하거나 결정에 불복하는 불법 폭력 행위는 더욱 엄정히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기창 광주지방경찰청장도 이날 서

부경찰서를 찾아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불복한 시민 일부가 법원, 정당사무실 등 기관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경찰은 정치적으로 고려 없이 대처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울지역에 을(乙)호 비상을, 다른 지역에는 경계강화를 발령했다. 을호 비상은 갑(甲)~을(乙)~을(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량 중 2번째로 수위가 높은 단계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10일에는 서울 지역에 최상위 경계대세인 갑호 비상을, 다른 지역에는 을호 비상을 발령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민주당, 대선 경선 선거인단 163만595명

1차 마감...하루 평균 7만여명

탄핵 인용땀 11일부터 2차 모집

더불어민주당이 9일 1차 대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마감한 결과, 160만 명을 넘어선 163만595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5일 시작, 이날까지 23일 동안 진행했다는 점에서 하루 평균 7만 명 정도가 신청한 셈이다.

〈관련기사 4면〉

당초 당내에서는 전체 선거인단을 150만 명 정도를 예상했지만 1차 선거인단 모집이 흥행을 일으키면서 2차 모집까지 감안하면 최대 2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대선 경선 선거인단 인원은 108만 명이었던.

민주당은 10일 현재가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 그 다음 날인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2차 선거인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2차 선거인단 모집 기간을 놓

고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측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측과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2차 선거인단 모집 기간이 최소 10일 정도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경선 시간표도 윤곽을 잡아 가고 있다.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이번 대선은 5월 9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대선을 기준으로 역산해 일정을 잡은 민주당 경선은 3월 중·하순께부터 불이 붙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선의 하이라이트는 3월 27일에 열리는 호남 지역 순회 투표다. 후보들의 연설을 듣고 나면 3월 25~26일 ARS 투표 결과와 현장의 투표 결과를 추가, 호남 지역의 승자가 발표된다. 야권의 심장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호남의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대세론’이 굳어질 수도,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수도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新팔도유람-청주 ‘수암골’ ▶18면

KIA 스프링캠프 MVP 한승혁 ▶20면

usan-sclass.com **중흥S-클래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아파트

상무생활권과 송정역세권의 더블 프리미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아파트가 만드는 1,660세대 대단지 랜드마크.
스케일은 물론 교통, 비전까지 완벽하게 누리는 특별한 생활이 옵니다!

광산구 우산동 중흥S-클래스 센트럴

무제한 전매가능

(3.3㎡당) 800만원대 분양가

중도금 무이자

3월 10일 OPEN

관심고객 등록 EVENT

지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관심고객 등록하고 **태블릿PC**의 행운을 잡으세요!

- 1등(1명) 태블릿PC (1대)
- 2등(5명) 모바일 피자이용권 (1판)
- 3등(50명) 모바일 커피이용권 (1잔)
- 4등(150명) 모바일 편의점 이용권 (2,000원)

경품지급 : 주택전시관 현장지급 및 모바일 발송
※ 자세한 사항은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십시오. <http://usan-sclass.com>

최적의 교통환경

상무대로, 무안-광주고속도로(운수IC), 2순환도로(유덕IC)를 통한 접근성과 지하철, KTX-SRT광주송정역 등 시내와 이동에 용이

편리한 상무지구 생활권

아마트 광산점, 메가박스 광주하남점, 광주상록병원 등이 인접하며, 완벽한 인프라를 누리는 상무지구 생활권으로 편리

쾌적한 자연환경

단지와 맞닿은 일미산공원의 풍부한 녹지공간과 송정공원, 향림강·영산강 수변공간이 인접한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송정역세권 개발의 미래가치

KTX-SRT복합환승센터(건립예정)과 투자선도지구(2019년 8월 말) 지정 등 송정역 일대 융복합단지 개발 프리미엄

직주근접 프리미엄

인근 소촌산단 및 평동산단(3차 신도시), 금호타이어 등 가까운 산단근로자들의 직주근접 프리미엄

가까운 교육환경

송우초, 광산중, 정광고, 마이스티고(광주자동차화성비공업고·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티고), 광주여대 등 다양한 교육환경

1,660세대 中 일반분양 708세대 공급 84㎡·78㎡·75㎡

문의 **364-0001**
062

시행 **송정주공재건축조합** 시공 **중흥건설**

주택전시관 : 광주광역시 서구 능성동 393-55